

언어생활에서 행동언어의 몇가지 특성과 기능

박사 부교수 안 성 득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말과 행동은 언제나 하나로 어울리면서 때로는 말이 행동을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동이 말을 살리기도 한다. 말은 사람의 사상감정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수 있지만 거기에 행동이 따르면 표현력이 한결 더 커진다.》(《김정일전집》 제20권 236페이지)

언어는 인간교제의 기본수단이다. 언어가 없이는 사람들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질수 없다. 그것은 언어가 사람의 사상감정을 가장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드러낼수 있는것과 관련된다.

사람들은 언어로 객관적현실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사물현상을 표현하며 현실에 대한 자기의 감정, 의도, 소원 등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언어라고 할 때 많은 경우 음성언어(또는 글)만을 넘두에 둔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사교환은 순수 음성언어로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언어생활은 음성언어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여러가지 행동을 보조적수단으로 함께 리용하기도 한다.

언어학계에서는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들사이의 교제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되는 손짓과 얼굴표정, 몸짓 등을 행동언어라고 부른다.

실례로 사람들사이의 교제에서 직접 말을 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을 주시하여 눈을 올리뜨고 바라본 다음 손가락으로 책을 가리키고 다섯손가락을 펴고 내밀면 상대방에게 책을 자기에게 달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음성언어를 대신한 행동 또는 동작이라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인간교제의 수단으로서는 언어와 함께 행동도 리용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음성언어는 어떤 뜻을 말소리로 표현한것이라면 행동언어는 그것을 동작으로 표현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행동언어란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음성적수단으로가 아니라 동작으로 나타내는것을 말한다.

결국 동작으로 말을 대신하는것이 곧 행동언어이다.

일반적으로 눈웃음을 지으면 좋아한다는 뜻이고 손을 들어 흔들면 잘 가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며 몸을 비틀면 싫어한다는것을 표현한것이다.

사람들의 교제활동에서 행동언어가 노는 역할을 잘 알고 실천에 구현하는것은 언어생활을 보다 다양하게 하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행동언어는 음성언어와 함께 오래전부터 인간교제에서 리용되였다. 사람들은 단어의 도움으로뿐아니라 몸짓을 수단으로 하여서도 서로 교제하였다.

세계적으로 행동언어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력사를 가지고있다.

행동언어의 창시자라고 볼수 있는 사람은 캐나다의 인류학자인 레이 버드위스트이다. 행동언어학은 버드위스트가 논문 《동작학에 대한 소개》를 세상에 공개한 1952년에 나왔다고 볼수 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서부캐나다에서 원주민들의 언어와 풍습, 문화와 일반생활방식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원주민들이 자기들끼리 말할 때 즉 모국어로 진행되는 대화과정에 사용하는 행동이 영어나 프랑스어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진행할 때 리용하는 행동과 현저하게 차이난다는것을 발견하였는데 그의 연구결과는 인류학자들속에서뿐만아니라 생리학자들과 기호학분야의 전문가들속에서 대인기를 모았다.

얼굴표정, 감정에 대하여 깊이있는 연구를 진행한 학자는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인 찰즈 다윈이었다.

다윈은 1872년에 쓴 《사람과 동물에서의 감정의 표현》이라는 책에서 《감정표현은 다름아닌 사람의 내적상태의 발현이다.》라고 하면서 감정과 그 발현의 호상관계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였다. 그는 감정의 생리적원인과 감정적행동의 발생 등에 대한 문제뿐만아니라 감정표현이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다는 문제에도 신중한 주의를 돌리었다.

얼굴표정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속에는 에크먼과 프리즌도 있다. 에크먼과 프리즌은 1 000여개의 각이한 얼굴근육움직임이 존재하며 얼굴에 표현되는 매개 감정은 자기의 근육조직과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있다고 정립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연구성과를 합쳐 《얼굴표정분석기술》이라고 부르는 얼굴표정을 분석하는 독특한 체계를 만들었다.

이 체계에 근거하여 에크먼은 사람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가능성정도에 따라 사람의 감정을 7가지로 구분하였다.

에크먼의 견해에 따르면 감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기쁨과 행복, 2) 놀라움과 경탄, 3) 공포, 4) 혐오와 경멸, 5) 슬픔, 6) 분노와 격노, 7) 흥미와 관심

그는 이 7가지 기본감정이 종합적인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여러 민족들에 있어서 이 감정들이 동일하게 인식되기때문이라는것이다. 나머지 모든 감정은 부차적인것이라고 하였다.

에크먼과 프리즌은 행동언어를 생리적측면에서만 연구하면서 그것이 인간교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로씨야언어학자 젤스까야는 자기의 저서 《로씨야회화어: 언어학적분석과 교육문제》에서 행동이 회화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대하여 밝혔다. 그는 행동은 두가지 즉 음성언어 요소들을 대신하는 행동들과 여러가지 진술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대역하는 행동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또한 행동이나 얼굴표정이 대명사적단어들을 해설하는데도 리용되며 때에 따라서는 행동으로만 구성된 대화구조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젤스까야는 행동언어는 민족적특성을 가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교제가 끊어지거나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공부정행동표현에서 로씨야와 벨가리아의 차이를 실례들었다.

세계적으로 행동언어를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는 교제에서 행동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는데만 그치였다고 볼수 있다.

학자들은 행동언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내놓았다.

《사람들사이에 정보의 35%는 언어로, 65%는 비언어적인 교류형식으로 전달되며 교

류의 총 효과는 7%의 언어, 38%의 음조, 55%의 얼굴표정이다.》

한마디로 학자들은 언어교제에서 노는 행동언어의 중요성을 한결같이 인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시기 행동언어에 대한 선행연구정형을 분석하고 행동언어의 몇 가지 특성과 기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 본 론

2.1. 행동언어의 특성

사람들사이의 교제에서 행동언어는 조건과 정황에 따라 음성언어보다 더 효과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어떤 행동이 말보다 더 강한 인상을 줄 때도 있다.

행동언어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행동언어는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특성 즉 시각적특성을 가진다.

그 어떤 행동이든지 그것은 사람들사이에 서로 보고 이해하고 전달하는것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눈앞에 그러서 나타낼수 없는 복잡한 사상감정은 그대로 섬세하게 표현하기가 힘들다.

둘째로, 행동언어는 관습화되어있는 특성 즉 민족성을 가진다.

관습화된 행동은 인류력사발전과정을 볼 때 어느 나라에서나 다 찾아볼수 있다.

행동언어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인사례절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온 사회에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도덕기강을 세우는데서 인사례절을 잘 지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사례절이란 사람들이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에 례의를 지키는 일이다.

인사례절은 사람들의 도덕생활에서 초보적인것이지만 사람들의 품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된다.

우리 인민의 고유한 인사법은 몸을 굽히여 상대방에게 하는 조선절이다. 조선절에는 큰절, 반절, 얹은절이 있다.

그러나 서양사람들의 인사는 일반적으로 서로 만났을 때 입을 맞추거나 자기의 입을 상대방의 볼에 대는것으로 표현한다. 남자가 여자에게 인사하는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여자들이 옷사람에게 인사할 때에는 두손으로 자기 치마자락을 잡거나 혹은 그냥 무릎을 약간 굽히기도 한다.

악수란 말은 손을 마주 잡는다는 뜻으로서 서양식인사법이다.

악수는 옛날에 유럽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자기손에 무기나 흉기와 같은것을 쥐지 않았다는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곤 하던 습관으로부터 유래된것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서로 만났을 때 악수를 하는것이 보편화되어있지만 악성비루스에 의한 전염병의 확대와 관련하여 그것이 위생상 불결한것으로 인정되고있다.

이처럼 인사법은 나라와 민족마다 다르다. 그러나 인사는 인사말과 함께 모두 행동으로 진행된다는데서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그 행동은 나라마다 다 관습화되어있다.

나라와 민족마다 관습화된 행동언어는 인사례절뿐이 아니다.

조선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머리를 끄덕이면 찬성을,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 반대를 나타낸다. 그러나 벨가리아나 네팔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 찬성, 머리를 끄덕이면 반대를 나타낸다.

서양사람들은 의문을 나타내거나 잘 모르겠다는것을 표현할 때 머리를 한쪽으로 약간 기웃거리고 두팔을 량쪽으로 벌려 내려뜨리면서 손바닥을 앞으로 펴보인다. 그러나 조선사람들은 손바닥을 펴들고 얼굴앞에서 가로젓거나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조선사람들은 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손바닥을 아래로 펴서 앞으로 내밀고 통기지만 서양사람들은 반대로 손바닥을 위로 펴서 통긴다.

이처럼 행동언어는 사람들의 교제에서 굳어지고 관습화된 특성을 가지고있다.

셋째로, 행동언어는 하나의 동작이 여러가지 뜻을 나타내는 특성 즉 다의성을 가진다.

하나의 동작이 여러가지 뜻을 가지는것은 손짓, 눈짓, 머리동작 등 모든 행동에 다 있다.

실례로 팔짱을 끼는 행동은 그 수행조건과 환경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거만성을,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태세를 표현할수도 있다. 또한 턱을 쳐들고 눈을 내려보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거만한 심리를 표현하지만 때로는 초조하고 긴장할 때 목구멍을 크게 열어주어 찬공기를 마시려는 행동으로도 표현되는것이다.

이처럼 행동언어에서는 같은 행동이라도 그 의미가 조건과 환경,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며 때문에 행동을 정확히 수행하여야 의사교환이 무리없이 원만히 진행될수 있다.

2.2. 행동언어의 기능

교제활동의 수단으로서의 행동언어의 기능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음성언어를 일정하게 대신한다는데 있다.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손세를 써가며 음성언어를 대신하여 서로의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때 그 효과는 언어교제와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많은 교제마당에서 여러가지 몸짓, 자세, 얼굴표정 등 행동언어로써 언어를 대신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교류를 실현하게 된다.

실례로 무용배우들이나 동작과 표정만으로 내용을 나타내는 무언극배우들은 공연을 하면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전부 손짓과 발짓, 몸짓, 자세, 얼굴표정 등으로 해당 뜻을 표현하여 관람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관람자들 또한 그것을 정확히 감수하여 서로의 교감을 나눈다.

이러한 현상은 권투경기장에서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팔과 몸동작을 써가며 일정한 조언을 주는것이라든가 건설장들에서 기중기신호공들이 보내는 신호 그리고 교통안전원들이 손동작으로 거리로 달리는 차의 운전사들에게 여러가지 해당하는 신호를 주는것을 들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한 어린이가 문밖에서 놀러가자고 찾았을 때 집에 있던 아이는 말은 하지 않고 옆에서 집안일을 하는 자기 어머니와 자기 손에 든 책을 번갈아 가리키면서 손을 들어 좌우로 흔드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의 행동이 《어머니는 나에게 나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기때문에 놀러갈수 없다.》라는 뜻을 한마디의 말도 없이 손짓으로만 손색없이 표현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손가락으로 귀구멍을 후비는것은 듣기 싫다는 의미를,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는것은 제일이다 또는 최고이다라는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한쪽눈을 찡긋하여 보이는것은 모르는척 해달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 모든것은 행동언어가 일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감수하게 하는 기능을 음성언어를 대신하여 훌륭히 수행한다는것을 말해준다.

교제활동의 수단으로서의 행동언어의 기능은 다음으로 행동언어가 음성언어로 전달하는 정보의미의 무게를 더해준다는데 있다.

흔히 사람들은 주먹을 짹 틀어쥐는것으로써 자기가 하는 말의 무게를 더해준다. 가령 두주먹을 틀어친 상태에서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 그 틀어친 주먹은 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것을 명백하고 단순하게 표현한다고 볼수 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에서 강옥의 어머니가 강옥을 진웅산과 혼인을 맺도록 하자는 강태관의 말에 《홀아빈 싫수다.》라고 하면서 등을 돌려대는 장면, 예술영화 《사랑의 노래》에서 현우에게 마음을 두고있는 옥주에게 《난 그런것도 모르고 너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고 아예 싹...》이라고 하면서 칼로 무엇을 자르듯이 편 손을 내리긋는 춘심의 행동 등은 음성언어의 내용적의미를 보다 강하게 해주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교제활동의 수단으로서의 행동언어의 기능은 다음으로 행동언어가 특수한 표현적효과를 나타낸다는데 있다.

행동언어는 음성언어를 살리는 수단으로 된다.

행동언어는 음성언어와 어울려 쓰이면서 표현력이 한결 더 커진다. 따라서 문학예술 작품에서는 음성언어와 행동언어를 함께 어울려 쓰는것이 적지 않다.

실례로 문학예술작품에 등장한 지주가 제놈을 쏘아보는 마을사람들과 눈길이 마주치자 《으흠!》하고 헛기침을 하였다고 보자.

여기서 《으흠!》은 위엄을 보이는 헛기침소리로서 음성언어이고 지주가 일부러 《위엄》을 보이려는 뜻에서 헛기침을 하는 행동은 곧 행동언어로 된다. 만약 헛기침을 하는 행동언어를 쓰지 않으면 《위엄》을 보이는 지주의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날수 없다.

이처럼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음성언어와 행동언어가 어울려 쓰이면서 표현적효과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사람이 손세나 얼굴표정, 눈빛 등으로 교제를 하게 되는것은 언어로 표현하려는 내용(뜻)을 대신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수 없는 천만가지의 마음속감정을 표현하기 위한데도 있다.

행동언어는 말과 결합될 때 사상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낼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언어가 음성언어보다 더 강한 인상을 줄 때도 있다.

말없는 가운데서 취하는 행동이 음성언어보다 더 강한 인상을 주는것은 흔히 문학에

술작품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레를 들어 예술영화 《생의 흔적》의 속편 《이어가는 참된 삶》에서 승용차와 마차가 어기칠 때 군당책임비서와 창석, 광일, 순정이의 행동은 음성언어보다 더 강한 인상을 주는 행동언어라고 할수 있다. 영화에서는 군당책임비서가 탄 승용차와 역전에서 마을로 돌아오는 창석이와 광일, 순정이가 탄 마차가 어기친다. 군당책임비서는 자기가 탄 승용차를 길옆에 비키게 하고 너그럽게 웃는 얼굴표정으로 손짓을 하면서 마차를 먼저 지나 보낸다. 마차를 몰던 창석 그리고 마차에 앉은 광일이와 순정이는 아무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과 감동,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며 승용차옆을 지나간다.

여기서 군당책임비서의 말없는 행동은 음성언어로 《빨리 가보오.》 또는 《어서 가보시오.》라고 하는것보다 더 강한 인상을 주고있다. 그리고 창석, 광일, 순정이의 말없는 행동은 《정말 고맙습니다.》 또는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속대사를 보여주면서 음성언어보다 몇배나 더 강한 인상을 주고있다.

교제활동의 수단으로서의 행동언어의 기능은 다음으로 행동언어가 일정한 정보를 인정하거나 실증해준다는데 있다.

행동언어는 대체로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로출시키게 되므로 그것은 진실감이 크다. 즉 행동언어는 음성언어보다 사람들의 교제에 주는 작용은 작지만 그것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음성언어로 전달되는 정보에 못지 않다.

가령 한사람이 불치의 병으로 입원하였을 때 면회를 간 사람들은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인차 일어날수 있으니 마음놓고 치료를 잘 받으시오.》라고 말하게 된다. 이때 위로의 말을 하는 면회자는 자기도 모르게 무겁고 가슴아픈 불안한 심리상태를 나타낼수 있다. 그러면 환자는 면회자의 얼굴이라든가 언행을 통하여 자기의 병세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음성언어로 전달되는 정보는 동시에 표현되는 행동언어에 의하여 진실과 거짓이 더욱 명백해지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얼굴빛이 붉어지거나 눈길어 어딘가 불안해하고 또 상대방의 눈길을 피하려는것과 같은 몇몇치 못한 행동을 하는데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행동언어는 그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는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것이다.

일부 경우에는 행동언어가 전달하는 정보도 음성언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더욱더 실증해주기도 한다.

실례로 어떤 사람의 고마운 행동에 감동되어 그의 손을 꼭 그러잡고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꼭 잡은 손과 눈표정과 같은 행동언어에 의하여 정말 고맙다는 정보는 더욱더 실증되게 된다.

교제활동의 수단으로서의 행동언어의 기능은 다음으로 행동언어가 음성언어에 보충적인 작용을 해준다는데 있다.

사람들의 행동은 언제나 개성적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정황에서도 사람마다 행동이 같지 않으며 같은 행동이라도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은 없다.

그 어떤 행동이든지 일정한 원인과 계기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행동언어로 되는 동작, 웃음 등이 인물형상에서 말에 못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례로 장편소설 《김삿갓》에서 원생원이 계향에게 《그 대감께서 벼슬을 내논지도 얼마 안되시고 하니까. 뭐 아직까지 조정에는 힘이 계실거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 잘 아뢰서 나 벼슬 하나 시켜다오.》라고 말하자 계향이 《호호호》하고 웃는다.

이때 웃음소리 《호호호》는 음성언어로 되지만 계향의 웃음은 비루한 원생원을 가소롭게 생각하면서 비웃는 동작과 결합된 하나의 행동언어라고 할수 있다.

이처럼 교제활동의 수단으로서의 행동언어는 음성언어를 일정하게 대신하여 전달하는 정보의 무게를 더해주고 특수한 표현적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며 일정한 정보를 인정하거나 실증하고 음성언어의 내용을 더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결 론

언어생활에서 음성언어, 문자언어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여기에 여러가지 행동이 보조적수단으로 함께 리용되는것만큼 행동언어의 본질과 특성, 실천상에서 그것이 노는 기능을 밝히는것은 행동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음성언어의 표현력을 보충해주는 행동언어는 경우에 따라 음성언어보다 더 강한 인상을 줄 때도 있다. 또 객관적이면서도 추상적인 교제수단인 행동언어는 음성언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더욱 정확하고 확고하게 해주는 작용을 할수 있다. 그리고 개인심리의 변화과정도 매우 섬세하게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작품들에서 형상성을 높이는데 적극 리용될수 있다.

우리는 행동언어에 대한 연구를 더 심화시켜 언어학의 폭을 넓혀나감으로써 우리 식의 고상하고 문명한 새 생활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언어생활, 행동언어, 기능, 교제, 몸짓, 얼굴표정